

당뇨병성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발생한 안근마비 1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내과

정승혜, 김영옥, 윤유선, 남희철, 김민주

Ophthalmoplegia in Patient with Diabetic End-Stage Renal Disease

Seunghye Jung, Youngok Kim, Yuseon Yun, Heechul Nam, Minju Kim

Division of Neph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외상의 병력 없이 다른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하지 않은 안근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허혈성 안근마비와 뇌종양이나 뇌동맥류에 의한 압박성 안근마비를 들 수 있다. 당뇨병은 허혈성 안근마비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6 번 뇌신경 마비로 인한 안근마비가 당뇨 환자에서 대조군에 비해 발생 위험이 6배 높다는 보고가 있다. 저자들은 당뇨병성 말기신부전으로 혈액투석 중인 환자에서 당뇨병성 안근마비가 발생한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48세 남자가 내원 1주 전 발생한 복시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좌안의 외측 주시 이상을 보였고, 증상은 먼 물체를 볼 때 심하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환자는 당뇨병성 말기신부전으로 주 3회 혈액투석 시행하고, 고혈압과 폐쇄동맥경화의 경력이 있었고, HbA1C 9.2%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은 과거력 있었으며 신경병증은 동반되지 않았다. 내원시 혈압 150/90,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이학적 검사에서 국소 신경학적 징후 보이지 않았다. 무작위혈당 437, 공복혈당 221이었다. 환자의 양측 동공의 크기, 모양은 정상이었으나 좌측안구의 외전운동이 제한되어 있었다. 복시의 다른 원인을 감별진단하기 위해 뇌 컴퓨터전산화단층촬영과 자기공명영상 촬영하였으며 신호변화나 비정상적인 조영증강 소견 없었고 뇌종양이나 뇌동맥류와 같은 구조적 이상 소견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입원 후 혈당이 정상범위로 조절되면서 점차적으로 증상 호전 보여 당뇨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안근마비로 진단하였으며, 환자는 입원 5병일 째 증상 거의 회복된 상태로 퇴원하였다.

Key Words: 당뇨, 말기 신부전, 안근마비

Diabetes, End-stage renal disease, Ophthalmoplegia